

신체 밸런스 판별 슈트 개발을 위한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의 체형 분석

박근정*, 김장현**

*대경대학교 K-모델연기과

**디자인 팩토리

e-mail:jamie8122@naver.com

The Body Typ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Fashion Model for Development of the Body Balance Determination Suit

Keun-Jung Park*, Jang-Hyeon Kim**

*Dept. of K-model Acting, Daekyeung University

**Design Factory

요약

본 연구는 패션 모델의 효과적인 위킹을 위한 신체 밸런스 판별 슈트 디자인 개발에 앞서 패션 모델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해보고, 한국인들의 인체치수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그 차이점을 조명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활용한 연구방법 및 범위는 패션 모델의 개념 및 신체 측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및 D대학의 패션모델학과 재학생 남자 30명, 여자 30명을 대상으로 모델 신체사이즈를 측정한 후, 최종적으로 제 7차 인체사이즈조사에서 제시한 20~24대의 신체 사이즈와 패션모델학과 대학생 신체 사이즈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그 차이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4대의 인체 표본 조사 치수와 모델학과 대학생들의 직접측정항목 및 기타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은 20~24대에 비해 키를 비롯한 대부분의 높이항목은 길며, 팔길이와 어깨길이 및 다리길이 길고 팔길이와 어깨 길이 및 다리길이 길고 두께나 너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4대는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에 비해 대부분의 높이항목이 짧고 상반신이 길고 두께나 너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배둘레, 위팔둘레의둘레나 두께, 너비항목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어깨 너비, 여성의 경우 엉덩이 둘레를 제외하고는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이 20~24대에 비해 모든 항목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그 밖의 항목으로는 몸무게와 BMI항목, WHR항목은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이 20~24대의 평균값에 비해 작게 나타났는데, 신체의 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패션 모델 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라 해석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을 위한 신체 밸런스 판별 슈트 설계 시, 들레 항목 및 길이나 높이에 있어서 반드시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의 신체적 특수성이 반영된 패턴 설계가 요구된다.

1. 서론

패션모델의 위킹은 패션쇼 무대에서 패션 디자이너의 의상이 함양하고 있는 형태미나 미적 감흥을 최대로 표현하기 위한 기술적 또는 심리적 표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모델을 희망하는 학습자들이 무대 위에서 패션모델이 수행하는 위킹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며, 표현 동작의 심미성을 창조하기 위한 신체적인 완성도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체구조 및 신체특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개인의 위킹에 적합하도록 변화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모델 위킹 시 자신들의 신체적 밸런스를 파악해볼 수 있으며, 교수자 또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 밸런스 판별 슈트를 개

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할 부분으로 의복구성을 위한 신체 사이즈의 측정이 요구된다. 국내 표준 신체 사이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한국인 신체 치수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1979년 1차 인체치수조사를 기점으로 현재 2015년 제 7차까지 진행되었다. 하지만, 패션모델의 신체 사이즈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만든 의복을 착용하여 대중들에게 이를 선보이는 모델 직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키나 신체적 비율 등 신체적인 조건의 기준을 가장 엄격하게 파악함에 있어 한국인의 평균 사이즈로 규정짓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모델의 효과적인 위킹을 위한 신체 밸런스 판별 슈트 디자인 개발을 위한 선행단계로서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해보고, 20대 일반인들

의 신체치수와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그 차이점을 조명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모델 교육에 있어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의 신체 사이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의 신체적 조건에 부합하는 보다 효과적인 신체 밸런스 판별 슈트의 의복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모델의 개념 및 신체 측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실시한다. 둘째, 한국인의 평균 신체 사이즈와 비교분석을 위해 제 7차 인체사이즈조사에서 사용되었던 측정 위치를 중심으로 D대학의 패션모델학과 재학생 남자 30명, 여자 30명을 대상으로 모델 신체사이즈를 측정한다. 최종적으로 제 7차 인체사이즈 표본 조사에서 제시한 20~24대의 인체 사이즈와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의 인체 사이즈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그 차이점을 조명하고자 한다.

3. 연구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대의 인체 표본 조사 치수와 모델학과 대학생들의 직접측정항목 및 기타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은 20~24대에 비해 키를 비롯한 대부분의 높이항목은 길며, 팔길이와 어깨 길이 및 다리길이가 길고 두께나 너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4대는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에 비해 대부분의 높이항목이나 길이항목이 짧고, 상반신이 길고 두께나 너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둘레나 두께, 너비 항목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어깨 너비, 여성의 경우 엉덩이 둘레를 제외하고는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이 20~24대에 비해 모든 항목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그 밖의 항목으로는 몸무게와 BMI 항목, WHR항목은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이 20~24대의 평균값에 비해 작게 나타났는데, 신체의 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패션 모델 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라 해석된다.

넷째, 지수치 분석에 따르면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이 20~24대에 비해 상반신 길이나 하반신 길이는 길며, 엉덩이높이와 살높이, 팔길이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배둘레, 위팔둘레의 항목은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이 20~24대 일반인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을 위한 신체 밸런스 판별 슈트 설계 시,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배둘레, 위팔둘레 등 둘레 항목 및 팔길이, 다리길이, 엉덩이 높이나 살높이 등 길이나 높이에 있어서 반드시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의 신체적 특성이 반영된 패턴 설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어깨 너비의 항목, 여성의 경우 힙의 둘레만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신체 밸런스 판별 슈트 설계 시,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의 신체적 특수성이 반영된 의복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여성의 인체 치수에 있어 젖가슴둘레와 가슴둘레의 차이는 20~24대가 패션모델학과 대학생들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세대 및 실버 모델들의 보다 다양한 연령대로 확장하여 한국인의 평균 인체 사이즈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모델 신체사이즈의 DB구축 및 각 연령대의 교육에 적합한 신체 밸런스 슈트의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모델 교육의 학문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2021년 대경대학교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ALL-SET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